스님, 시장 상인에게 사찰음식 전하다

광주 '수자타', 각화시장에 사찰음식 나눔

대표 혜법 스님과 15년 인연
"식사 못 챙기는 상인들 많아
사찰음식 대접코자 나눔 시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월 19일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는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사찰음식을 보시했다.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대표 혜법 스님, 미륵사 주지)가 지역 상인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3월 19일,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사찰음식을 선물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찰음식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져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정성이 깃든 한 끼를 통해 시장 상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했다. 특히, 힘든 노동 속에서 끼니를 거르기 쉬운 상인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혜법 스님은 이날 나눔의 의미에 대해 "이곳 상인들은 추운 겨울 새벽 3시면 나와 입찰과 경매를 보며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꼭 한 번 수자타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은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는 시장으로, 수자타에서도 사찰음식의 주요 식재료를 구입하는 곳이다. 혜법 스님은 "내가 이 시장을 15년 동안 다녔다. 이곳 상인들과 정이 많이 들었기에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며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혜법 스님과 봉사자들은 연밥, 쑥개떡, 보리밥 등 15가지 음식과 8가지 나물을 준비해 500명분의 음식을 제공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사찰음식은 시장 곳곳에 차려져 상인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의 봉사자도 함께해 따뜻한 손길을 더했다. 박해영 봉사팀장은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시장에서 고생하는 상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자 미륵사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봉사에 나섰다"며, "어제부터 식재료를 준비하고 오늘 새벽부터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 상인들이 건강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각화시장에는 워낙 많은 상인이 있어 총 3곳에 음식을 마련해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시장에서 버섯을 판매하는 정혜은 씨는 "음식이 골고루 너무 맛있고 종류도 많아 고생이 많으셨겠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제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든든한 한 끼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수자타는 앞으로도 매년 분기별로 음식 나눔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찰음식을 통해 지역 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수자타'는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으로, 사찰음식의 전통을 계승하며,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찰음식 문화를 알리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음식 나눔 활동을 통해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 상인들과 인연을 맺고, 정성을 담은 식사를 제공하며 사회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수자타는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인 음식 나눔 행사를 계획하며, 건강한 사찰음식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떡볶이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희망 전해요

광주 소원정사 · 자비신행회
동신여중서 나눔 행사 개최


광주 소원정사와 자비신행회는 3월 13일 동신여중에서 새 학년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떡볶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나눔도량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와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는 3월 13일 광주동신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새 학년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떡볶이를 나누는 따뜻한 행사를 진행했다. 소원정사는 지난해 8월에도 팥빙수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계 스님을 비롯해 서대석 전 서구청장과 장성 무량선원 주지 지선 스님도 함께 참여해 봉사의 손길을 더했다.

'찾아가는 간식 떡볶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나눔 행사는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전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개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광주동신여자중학교에서도 이 같은 사랑의 나눔이 이어졌다.

봉사자들은 전교생과 교직원 450명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떡볶이를 조리해 따뜻한 간식을 건넸다. 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떡볶이를 받아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첫 떡볶이 나눔 봉사를 시작한 도계 스님은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스님도 덩달아 행복하고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며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떡볶이 선물을 받은 김민주(동신여자중 2학년) 학생은 "우리 가족은 모두 불교 신자라 절에 자주 간다. 학원 가기 전 출출할 때 간식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첫 나눔행사를 개최한 소원정사는 '찾아가는 간식 떡볶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영산작법 통해 선대 조사 기리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선대조사 다례재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가 선대조사 다례재 및 결산총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14일 태고종 전북종무원 보문사 큰법당에서 봉행된 선대조사 다례재는 영산 스님을 비롯해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지방종회의장 법전 스님 등 50여 명의 스님과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경건한 분위기에서 봉행된 이날 선대조사 스님 다례재에서 전북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은 전북지역의 영산재를 계승 발전시키며 전통을 이어온 역대 조사스님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다례재에서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은 공양게 작법, 다게작법, 천수바라작법 등 불교전통의식으로 영산재를 봉행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은 "오늘 선대조사 다례재를 통해 영산재를 계승 발전시켜온 스님들의 원력을 기리고,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결산총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감사 송월 스님의 감사보고, 지오 스님의 재무보고로 진행됐다. 총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2024년 결산안과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통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영산재를 비롯한 불교의식 문화를 충실히 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종문화체험관, 세종충남대병원 MOU

3월 11일 협약식…불교의료 프로그램 개발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세종 광제사 주지)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이 3월 11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와 전통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전시·홍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전시·홍보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관의 정보 및 연구 결과물 공유 △기타 협력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료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우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와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계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와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문화와 의료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불곡사, 제5회 취봉장학회 수여식

취봉 스님 23주기 추모법회도



창원 불곡사(주지 도홍 스님)는 3월 14일 경내 관음전에서 취봉 스님 열반 23주기 추모 다례법회 및 제5회 취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해원사 능산 스님, 장안사 묵암 스님, 팔봉암 법산 스님을 비롯한 문중 스님들과 금강원 장학회 회장, 보리수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법회에서 취봉 장학회는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7명의 모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은 "이번 법회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봉 장학회가 이타적 보살정신을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수현불교대학 제8기 입학식

3월 19일 큰법당서 개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전주 혁신도시 포교당인 수현사 수현불교대학은 3월 19일 큰법당에서 제8기 입학식을 봉행하고 새 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사진〉

이날 수현불교대학 제8기 입학생 38명과 담마학당 1기 신입생 25명은 신입생대표 김태평, 양희용 불자가 낭독한 입학선서를 통해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법우들과 화합하며 참된 불자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종 대종사 원적 13주기 추모다례재

백양사, 3월 14일 봉행



조계종 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3월 14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전 방장 수산당 지종 대종사 원적 13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무공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평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소탈하게 지내시며 평상행(平常行)을 하셨다"며 "후학의 모범이 되는 큰스님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다"고 회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시불자연합회, 중하 대종사 초청법회

3월 15일 마곡사 불교회관서



공주시불자연합회는 3월 15일 공주 마곡사 불교회관에서 '회주 마휴 중하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문에서 중하 대종사는 백장 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현대인도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양산 미타암, 제5회 용왕제 봉행

덕조 스님 초청 법회



양산 미타암(주지 동진 스님)이 3월 16일 경내에서 '제5회 용왕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으며, 불자 신도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동참했다.

덕조 스님은 법문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불자의 자세"라며 "용왕제는 이를 실천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수산자비선원, 자비나눔 보름법회

3월 14일 자비선원 대법당서



창원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 스님)은 3월 14일 3층 대법당에서 보름법회를 봉행했다.

법상 스님은 예불 후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가르침을 실현하는 순간이다. 앞으로도 불자님들과 함께 나눔과 복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